

2020.3.1

# 가정예배순서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묵상기도

사도신경

찬송가 570장

-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 하여 주신다
-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성경봉독 역대하 7:13~14

- 13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 ॥ 재앙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주기도문

# 설교말씀



## “재앙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며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알아듣지 못하면 고난의 불륨을 높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앙의 날에 미래와 희망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외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며 죄의 기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비참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외치십니다. “악한 길을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

### 둘째,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재앙은 교만해진 내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날에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무엇이 내리게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입니까? 재물입니까?”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의 날에,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 셋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 합심기도

1.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 의료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3.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4.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예배로 모이는 가운데 가정안에서의 신앙계승이 시작되는 시간되게 하소서